

순천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달린다

순천만정원 경유 도심 순환 100번·101번 등 5대...저상버스로 고령층·장애인 편의증진

순천시가 정부의 그린뉴딜,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운영을 개시했다.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는 노약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 CNG 버스와 달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저감에 기여하게 된다. 또 운행 시 소음 및 떨림이 적어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순천교동 차고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최창구 순천교통 대표,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통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 후 전기버스에 올라 시승식을 갖고 전기버스 운영을 축하했다.

순천시 전기 시내버스는 제일고에서 출발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신대지구를 거쳐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는 도심 순환노선 100번·101번으로 각 2대와 3대 등 총 5대가 투입된다.

하루 36회, 1000km 정도를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면서 순천시의 탄소 중립형 도시 조성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0일 순천교동 차고지에서 열린 시승식에 참석해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은 순천형 탄소 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라며 "순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해 순천형 탄소 중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읍사무소 "생활공구 무료대여하세요"

전동드릴·톱 등 43종

광양시 광양읍사무소가 생활공구 무료대여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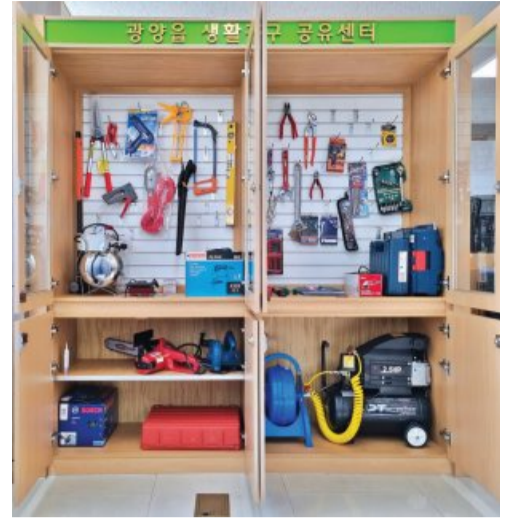
광양읍사무소에 따르면 읍사무소내에 '광양읍 생활공구 공유센터'를 열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센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임에도 사용 빈도가 낮아 가정에서 구입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각종 가정용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대여 가능한 공구는 전동드릴, 톱, 망치, 니퍼 등 43종으로 만 19세 이상 광양읍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보증금(1만원) 지참 후 광양읍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대여료는 무료인 대신 공구당 보증금 1만원을 납부하고, 공구 반납 시 공구에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공구는 가구당 최대 3개까지 대여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3일 이내이나 1회에 한해 최대 2일 연장 가능하다.

공유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자세한 사항은 광양읍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읍사무소가 운영중인 광양읍 생활공구 공유센터.

광양읍 관계자는 "평소 생활공구 대여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에 생활공구 공유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속 작은 불편 해소는 물론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재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법 개정엔 정치인 동참하라"

법사위 상정 보류 시민단체 '반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을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1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엔 지역 정치인은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간 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며 "여수 시민단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성공적으로 행사를 열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 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돼 사후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1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엔 지역 정치인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4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안이 발의된 이후 광양시의회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정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양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일면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들 예정이던 박람회법 개정법안은 일단 상정이 보류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사랑상품권 3월말까지 10% 할인 판매

월 100만원 한도

구례군이 오는 3월말까지 지역 자급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례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구례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형 120억원, 카드형 30억원으로 총 150억원이다.

1인당 월 구매는 100만원(지류 50만원, 카드 50만원)으로 한정되며 구매할 상품권은 구례군 가맹점(지류 927개소, 카드 772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례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은

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구례 봉성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3개 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카드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등 금융기관 11개 지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CK'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 80명 모집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여수시가 청결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 불법투기 사전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원 80명을 모집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취약지역 단속활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시원으로 선발되면 2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 근무하며, 주요 업무는 불법투기 행위 감시 및 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종량제봉투 사용 현장지도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

소로, 시 근무지원자는 여수시청 도시미화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80명의 감시원을 선발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현장 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80명을 선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감시원 운영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더불어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보성군,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중·고생 30만원·신혼부부 이사비 100만원 지급

보성군이 올해부터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성군은 젊은 세대의 보성군 유입 및 정착을 유

도하기 위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군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전입 시 보성사랑상품권 3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또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전입하면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성군으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면 전입자 1인당 울포해수욕장센터 입육권 10매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3매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1월호

2021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 다양해지는 기부 문화

- '무조건' 나눔이라 더 아름답다
- 선한 마음 밀어주는 정의로운 '돈줄생활'
- "기부를 놓이처럼" 돈줄생활을 즐긴다

향로 오디세이

美路 味路

전통과 자연의 숨결 영암엔 기가 흐른다

- 공동체의 전통과 공은 정신을 만다
- 현지의 맛 로컬 브랜드
- 자연이 말린 공간, 무화과 요거트&인절미
- 카페 '미술관아래' & '인디고'

신년 기획

2022 광주 문화계 전망

- 2022 광주문화 어떤 사업 추진하나
- 광주시립미술관 30주년, 시립예술단 무대 주목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임인년 비상 꿈꾸는 '호랑이' 때 KIA이거즈 외아수 박정우 엔틱한 클래식 담아 7집 앨범 낸 팝페라 테너 임형주

예향 초대석

조태일문학상 수상한 '지리산 시인' 박남준

"밤에 드는 시 한편, 나누는 삶 큰 행복이죠"

클릭, 문화현장

'자유와 저항의 시인' 발자취 생생 김수영문학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법주사 불법이 머무르는 그곳 고승 발자취 뚜렷

신년기획-월령 전시

송년의 위로, 새해의 희망 담은 전시들

'밝히고 비추는 Shining brightly' 전 '이철수 판화전 - 문인가 하였더니, 다시 길' 전

화제의 인물

"늘 새로운 몸짓으로 태어납니다" 완도 출신 '힙한' 현대무용가, 김보람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불멸의 연인'과 베토벤의 소나타 14번 '월광'